

“동학농민혁명 정신, 전 세계가 공유”

정읍시 17일 국제컨퍼런스 개최 근대혁명 도시들 참여 연대 모색 도올 기조연설·각국 연구원 발표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공유하기 위한 국제학술 대회가 정읍에서 열린다. 오는 17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정읍동학농민혁명국제컨퍼런스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2021 정읍 동학농민혁명 기념 국제 컨퍼런스 세계 혁명도시 연대회의 프레대회'가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부패한 권력에 맞서 싸운 세계 각국의 농민혁명 도시들을 초청해 함께 사건을 기억하고, 의미를 공유하며 미래를 위해 연대하는 새로운 장을 만들자는 의도로 기획됐다. 근대혁명 도시들의 역사를 모아 상호 교류하며 동학농민혁명의 정체성을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세상을 바꾸는 힘, 근대혁명 도시들의 기억과

연대'를 주제로 열리는 국제컨퍼런스는 도올 김용옥 선생의 기조연설로 시작한다. 도올 선생은 한국 역사에 익숙하지 못한 세계인들을 위해 한국 근현대 민중운동의 정점을 이루는 동학의 흔적과 시대정신을 알기 쉽게 설명할 계획이다. 주제발표 1부에서는 '한국의 고부 농민봉기와 일본의 농민혁명'을 주제로 동학역사문화연구소 조광환 소장과 일본 동양대학 고바야시 데쓰야 연구원이 발표에 나선다. 2부에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농민혁명과 기억'을 주제로 중국 베이징석유대학 중국현대사연구소 귀뤄자 연구원과 러시아 니즈니 고로노브대학 블라디미르 티호노프 교수가 발표를 이어간다. 3부에서는 독일 뮌하우젠 박물관 토마스 뮐러 관장과 혁명가 제게바를 연구한 마틴 게바라 두아르테 연구가가 나와 '독일농민전쟁 500주년과 남미 제게바의 혁명정신'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원광대 원도연 교수가 좌장을 맡고 3명의 토론자가 나서 ▲동학농민혁명 국제컨퍼런스의 발전 방향과 향후 과제 ▲고부 농민봉기 기념사업의 방향과 고부 관아 복원 사업 ▲정읍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의 전국화 방안 등을 주제로 다양한 질문과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참석자 수를 50명 이하로 제한하는 이번 행사는 대신 온라인으로 생중계 될 예정이다. 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 관계자는 "1894년의 동학농민혁명은 세계에서 일찍이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아래로부터의 대혁명'이라며 "그 혁명정신은 오늘날까지 면면히 이어져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국제컨퍼런스를 계기로 국가간 연대를 통해 '시민주, 보국안민, 다시 개혁' 등 자랑스러운 동학의 사상을 전 세계인이 공유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남원시 취약층 재해 대비 '행복+안심 보험' 가입

사망·입원 최대 2000만원 지급

남원시가 지역 내 취약계층의 재해대비를 위한 단체보험에 가입했다. 협약은 우체국의 보험상품인 '만원의 행복보험'을 관내 취약계층을 위한 공익형 상해보험 '남원시 저소득층 행복플러스안심보험'으로 남원시가 가입하고 우체국이 이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해로 인한 사망·수술·입원 시 위로금 등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 지급함으로써 취약계층이 당할 수 있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생활의 안정을 지원하는 보험이다. 보험료는 남성 1인당 3만3700원, 여성 1인당 2만2200원 중 남원시가 자부담 1만원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우체국이 지원하는 형식으로 가입당사자인 취약계층의 부담은 없다. 또 우체국에서 내년 1월 중 대상자의 자택을 일일이 방문해 사업설명회와 접수 및 심사를 원스톱으로 진행함으로써 가입당사자가 공공기관 등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도 없다. 안심보험 신청대상은 남원시 거주자로 만 15~65세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층이며 대략 2500명이 해당된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이환주(오른쪽) 남원시장과 백만숙 남원우체국장.

남원우체국 백만숙 국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저소득층 시민들이 각종 위협으로부터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공익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남원시 저소득층을 위한 행복보험이 갑작스러운 재해사고 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을 보살피는 따뜻한 지역복지 안전망 구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순창 결혼이주여성 10명이 만든 영화 '짱하네'

'친구 좋다는게 뭘데' 시사회 갈등·편견 등 가감없이 담아

"낮선 순창으로 시집와 살면서 겪은 삶과 집에서 말하지 못한 이야기를 영화로 담았어요. 정말 재미있었어요." 순창지역 결혼이주여성들이 직접 겪은 일과 소소한 삶의 즐거움 등을 주요 내용으로 영화를 제작했다. 지역 결혼이민자들 10명이 직접 만든 10분짜리 단편영화 '친구 좋다는게 뭘데' (영어 제목 That's What friends are for) 시사회를 가졌다. 영화는 결혼이민자들이 순창에서 살면서 겪은 가정 내 갈등,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 등에 관한 진솔한 내용을 담아 큰 웃음과 감동을 선사했다. 결혼이민자들은 '우리영화만들자' 사회적협동조합 지원으로 지난 10월 시나리오 작성부터 시작해 12월 초까지 두 달간 영화를 직접 만들었다. 이들은 영화 기초, 촬영, 편집 등을 배우며 영화 제작에 참여하고 영화에 출연까지 했다. 배우로 등장한 필리핀 이주여성 A(42)씨는 "처음에는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앞섰는데 서로 격려하며 즐겁게 영화를 만들었다"며 "집에서



자신들의 삶을 영화로 만든 결혼이민자들.

하지 못한 이야기가 시나리오에 들어가고 영화로 만들어지는 것을 보니 정말 재미있었다"고 말했다. A씨는 "부족하지만 시집와서 겪은 이런저런 이야기와 삶의 모습을 사실대로 담았다"면서 "최선을 다한 우리 모두에게 박수를 보낸다"며 밝게 웃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제작에 참여한 결혼

이민자들만 시사회에 참석했지만, 행사 후 순창군 건강가정·다문화센터 직원들이 다문화자녀 18명에게 20만원씩의 장학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결혼이주여성들이 영화를 통해 자신을 재발견하고 자존감을 높이는 시간이 되었을 것"이라며 "영화 만들기가 일회성에서 그치지 않고 새로운 도전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순창=장양근 기자 jy9@

군산시 하수도 요금 내년 1월부터 25% 올린다

군산시가 내년 1월부터 하수도 요금을 25% 인상한다. 공공하수도 사용자 현실화율(하수처리 원가 대비 요금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현저히 낮아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의 권고를 받아들인

조치다. 업종별로 인상되는 요금은 가정용은 월 20t까지 t당 655원에서 820원 오른다. 또 일반용은 월 30t까지 t당 760원에서 950원으로 인상된다. 시는 그동안 낮은 하수도 요금 부과로 공기업 경

영수지 악화 및 대형 하수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시민의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하수도 요금이 인상돼 송구하다"면서 "시민의 건강을 위해 하수처리시설 확충, 수질 환경개선, 노후시설정비 사업 등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kwangju.co.kr

상권 르네상스...익산 영등동 옛 명성 되찾기

중기부 공모사업 선정

5년간 100억원 지원 받아

스마트 상점가 구현 등 사업

익산시가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인 '제5차 상권르네상스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상권르네상스 사업'은 낙후된 구도심 상권의 자생적인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상권 환경과 경영 개선을 포함한 종합적인 지원사업이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시는 영등2동 815개 점포, 13만8206㎡를 상권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하고, 총 100억원(국비 50억원)을 투입, 사업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익산=유정원 기자 yjy@kwangju.co.kr

사업은 오는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이며, '익산 다e로움 상권르네상스 사업' 세부 계획을 고도화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백제문화와 역사, 영등동 상가와 백제단길 상인들이 함께하는 스마트 상점가 구현에 주력할 방침이다. 시는 지역 상권을 살릴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으로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포함해 전체 상권이 활기를 되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상권 르네상스 사업은 코로나19 등으로 침체된 지역 상권이 다시 부활할 수 있는 중요한 프로젝트이다"며 "앞으로 행정과 상인회, 전문가 등이 적극 협력해 영등동은 물론 지역 전체 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유정원 기자 yjy@kwangju.co.kr

고창군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운동 펼친다

전기차 보급·재생에너지도 확대

고창군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탄소중립 실천운동을 진행한다. 고창군은 가정 에너지 사용량 감축을 위해 탄소포인트제 신규 가입 확대와 인센티브 지급,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 산업·수송 부문으로 전기자동차 등 무공해 자동차 보급,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있다.

산림부문을 산림생태 복원, 탄소중립 공원 조성, 가로수 식재 등을 추진해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생활 속 전력과 물 사용 줄이기, 1회용품 사용 안하기, 자원재활용 적극 참여, 적정 냉난방 온도 설정 등을 홍보하고 있다. 이성수 고창군 생태환경과장은 "앞으로 군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생활 속 탄소 줄이기 활동을 확산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탄소중립 정책과제를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